

1월 5주차 Q&A — 급락 시그널과 그린란드 이슈

2026-01-26 · 박종훈의 지식한방 · qna_part1_04

박종훈의 경제로드맵 세 번째 Q&A —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11월 중간선거 사할 + 베센트 단기채 위주 발행이 만든 의도적 과열장에서 자발적 긴축 가능성은 제로. 강사가 짚는 살아있는 4 신호(인플레이·노동시장·달러가치·금리) 중 앞 셋은 모두 마비됐고 금리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호. 미국 10년물 금리는 2010년대 1.5% → 2026년 4.2%로 3배 뛰었고 2016년 발행 채권 만기가 2026년에 도래하며 이자 부담이 폭증한다. 한국은 미국과 달러 환율이 가장 결정적 신호 — 1,500원 1차 경계 / 1,550원 압박 / 1,600원 비상. 동시에 그린란드 이슈는 끝나지 않았다 — 트럼프의 살라미 전법이 미국·그린란드·사우디 희토류 삼각동맹으로 가시화. 그린란드 미탐사 80% 영역에 네오디뮴 등 3,600만 톤 추정 매장량 + 한국이 정제 후 제조업 밸류 체인에 깊숙이 발 담그고 있어 안보·투자 양 측면에서 핵심 변수. 덴마크 연기금 미 국채 1억 달러 매각은 31조 시장 대비 0.003%의 잉크 한 방울이지만 동맹국이 미 국채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금값이 떨어지지 않는다.

01 핵심 골격

- 1 존 템플턴 4단계 — 비관·회의·낙관·유포리아. 신규 증권 계좌 급증은 3단계 낙관 신호
- 2 트럼프 2026-11 중간선거 사할 — 패배 시 레임덕. 자발 긴축 가능성 0, 의도적 과열 지속
- 3 살아있는 4 신호 중 3개는 마비 — 인플레이(연준 압박)·노동(삼의 법칙 후행)·달러(미국은 환영)
- 4 금리만이 살아있는 신호 — 미국 10년물 1.5%(2010s) → 4.2%(2026) → 4.42%(2026-05) 3배
- 5 베센트 단기채 위주 발행 — 장기채 금리 인위 억제. 그래도 오르면 = 위험 신호
- 6 한국 환율 3단계 — 1,500원 1차 경계 / 1,550원 압박 / 1,600원 비상
- 7 한국 25년 폭등의 비결 — 재정 + 한은 통화 + 국민연금 16~17% 초과

- 8 그린란드 — 트럼프 살라미 전법 (자원 → 군사 기지 → 영토 매입)

- 9 그린란드 희토류 추정 매장량 3,600만 톤 — 미탐사 80%, 네오디뮴 풍부

- 10 Critical Metals 1월 빠른 움직임 → 5월 Tanbreez 70% 인수 + 사우디 50-50 JV

- 11 한국 = 희토류 밸류 체인 핵심 — 정제 → 제조 → 미국 완제품 공급. 북극해 시대 핵심축

- 12 덴마크 1억 달러 매각 = 31조 시장의 0.003% (잉크 한 방울) — 그러나 동맹국 무기화 가능성 열림

- 13 후속 흐름 본격화 — 스웨덴 Alecta 누적 \$7.7~8.8B + Moody's Aaa→Aa1 강등

02 최신 지표 보강 (2026-05-13)

미국 10년물 4.42% (강의 § 5 시간 연장)

2026-05-08 4.38% / 5/12-13

4.42% (Trading Economics). 강의 시점 4.2%에서 4개월 후 미세 상승. 5% 위기 임계까지는 거리 있으나 4.5% 노란불 경계 접근 중.

강의 § 5 '미국 10년물 1.5% → 4.2% 3배 + 2016 만기 차환 부담' 메시지의 시간 연장. 베센트의 단기채 위주 발행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채 금리가 자연히 위로 올라오는 흐름. 강의가 짚은 '베센트 인위 억제에도 오르면 위험 신호' 메커니즘이 실시간 진행 중.

출처 · advisorperspectives.com

Critical Metals Tanbreez 70% 인수 + 사우디 JV (강의 § 9 각도 확장)

2026-05 그린란드 정부 승인.

Tanbreez = 디스프로슘·터븀·네오디뮴 등 중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 규모. Saudi와 50-50 합작 회사 발표, 25% 정제 비구속 합의. 첫 출하 2028년 말 ~2029년 초.

강의 § 10 '1월 7·15·22 발 빠른 움직임' 진척의 4개월 후 정량 검증. Critical Metals가 60° North Greenland APS의 70%를 인수, 사우디 JV를 정식 발표 — 강의가 짚은 미국+그린란드+사우디 삼각 동맹이 실제 비구속 합의로 가시화. 시간표는 강의 시점부터 약 3~4년 진척 흐름.

출처 · seekingalpha.com

삼의 법칙 학계 한계 검증 + Richmond Fed SOS (강의 § 4 검증·반박)

2024년 paper: 삼의 법칙은 경기 침체 시작 후 4개월이 지나야 유용. 1950년 이래 최소 4번 false positive. 2024년 trigger는 이민 급증 false signal로 분석. Richmond Fed 2025-07 신규 SOS 지표 발표.

강의 § 4 '삼의 법칙은 노이즈, 후행 변수, 기사 보면 그냥 접어라' 진단의 학계 검증. 응답률 하락하는 CPS 표본(약 6만 가구) 데이터 품질 이슈까지 겹쳐 Richmond Fed가 주간 실업급여 청구 기반 신규 지표 SOS 발표. 강의 결론이 학계 평가와 정합한다는 검증 사례.

출처 · richmondfed.org

동맹국 미 국채 매각 누적 + Moody's 강등 (강의 § 12 사례 후속)

AkademikerPension \$100M (2026-01). 스웨덴 Alecta 누적 \$7.7~8.8B (2025년 초~). Moody's 2025-05 미국 신용등급 Aaa→Aa1 강등 (재정 우려·트럼프 무역 정책 불확실성 명시). 베센트 다보스 발언 'Denmark is irrelevant'.

강의 § 12 '잉크 한 방울이지만 동맹국 무기화 가능성 열림' 진단의 실제 실현 사례. Alecta 누적 매각이 \$7.7~8.8B로 본격화, Moody's 강등으로 미국 재정 신뢰 균열 가시화. 강의가 짚은 '트럼프가 우습게 보면 큰 일' 진단이 시간 갈수록 검증 중.

출처 · cbsnews.com

03 한국 투자자 — 예의주시 신호 3가지

- 01 미국 10년물 금리 매월 관찰** — 강의 § 5 명시. 베센트 단기채 인위 억제 중에도 5/8 4.38% / 5/12 4.42%로 미세 상승. 4.5% 노란불 경계 접근 흐름 모니터링.
- 02 한국 환율 1,500원 1차 경계 신호 관찰** — 강의 § 6 명시 3단계 임계점. 1,500원 / 1,550원 / 1,600원. 국민연금 16~17% 초과 시점 누적 흐름 들여다보기.
- 03 그린란드 희토류 밸류 체인 진척 모니터링** — 강의 § 10 명시. Critical Metals Tanbreez 70% 인수 + 사우디 JV. 한국 정제 진입 흐름 안보·투자 양 측면 들여다보기.

코로나 시국 급락장 사례 + 이번 급등장 급락 예측

팬데믹 =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이번엔 의도적 과열 — 트럼프 긴축 가능성 제로

남은 신호 = 금리만

그린란드 — 트럼프 첫번째 의도: 희토류

그린란드 희토류 개발 가시화

그린란드 골든돔 계획

희토류 — 한국의 핵심 밸류 체인

Fanding @kpunch · qna_part1_04